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시험과 유혹

(약 1:12-17)

Trial and Temptation

(James 1:12-17)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ames, the Apostle suggests three import ways in order to produce a mature faith.

1.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약 1:12).

여기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도 훈련이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훈련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12절). 하나님의 훈련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1. Your faith can grow through God's training

"Blessed is the one who perseveres under trial that because, having stood the test, that person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at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James 1:12.)

Here, 'trial' means the training that God gives us. Nothing can grow without training. God knows perfectly what kind of training we need, and what kind of training method can be the most effective.

James, the Apostle says that blessed is one who perseveres under trial (v.12). Those who persevere God's training and stand the test just refer to how they love God. The Lord promises the crown of life to those who love him. The crown of life is the best blessing and glory that we can receive.

2.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약 1:13).

여기 '시험'은 원수 마귀로부터 온 시험으로 영어성경에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유혹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놓는 덫과 같은 것으로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3. 모든 완전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약 1:16).

우리는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훈련을 잘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얻은 복은 완벽하여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유혹하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은 줄지 모르나 결국은 그 개인과 가정에게 오랫동안 쓴 뿌리와 저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결국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될 것임을 알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결국 나에게 완벽한 선물이 될 줄 믿고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어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 Your faith can grow by ignoring temptations of the Satan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James 1:13).

Here, 'temptation' that came from the enemy Satan is translated into 'temptation' in the Bible written in English. When we are tempted by something, we never say that we are tempted by God.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Temptation never comes from God because it is just like a trap set up to destruct and destroy someone.

3. We must know and believe that all blessings come from God

"Don't be deceived, my brothers and sisters" (James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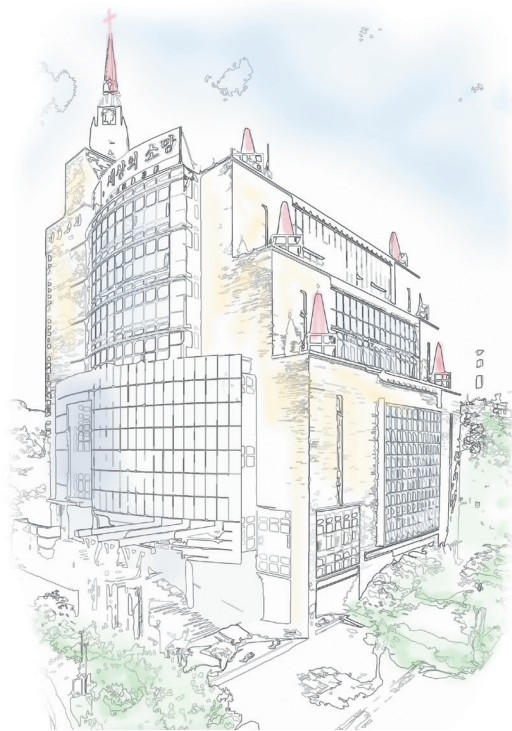
We should not be deceived by a sweet temptation of Satan. Our blessings come from only God. By believing it, we can endure God's training well. After finishing the training time, God will give us grace and victory. The blessings that we are credited for and received are perfect and there is not any sort of side effect. But the thing that is tempted by the world may temporarily give pleasure and

satisfaction but finally it may leave the root and curse for a long time to the individual and home.

Therefore, no matter how big and beautiful it is before our eyes, if it does not come from God, we should be able to refuse it, while if it comes from God. Even though it seems to be small and shabby to our eyes, eventually we should believe that it will be a perfect gift and receive it.

My beloved Christians,

What kind of test do you have now? Which temptation should you avoid? By realizing that the perfect gift comes from God and passing through God's training well,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accomplish a wonderfully spiritual growt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6 흥해작전 내일 개전

주제 :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 / 기간 : 6. 6(월) ~ 6. 25(토) 오전 5시

2016년 흥해작전 발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진행된다. 주제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이며, 기간은 6월 6일(월)부터 6월 25일(토)까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이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7번 이상 출석하여 2층 안내석에서 출석 스탬프를 확인 받아 25일 제출하면 출석상을 준다. 흥해작전 기간 동안 전교인이 참

여하는 특별행사로 사행시(흥해작전), 오행시(진정한 부흥, RENEW), 은혜 간증문 쓰기 시행하며, 교회학교에서는 백일장(산문, 사행시, 오행시), 그림 그리기 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도 갖는다. 흥해작전 기간동안 금요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며, 주일에는 5시30분에 새벽기도회로 모인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리안 헤어, 호산나대학에 전용 강의실 기증

2016년 5월 11일 미창조(주)리안헤어(유상준 대표)에서 호산나대학 뷰티케어학과 강의실 기증식을 가졌다. 리안헤어는 43㎡의 강의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해 헤어 기자재 및 제반 시설 일체를 지원했다. 기증식에는 호산나대학 이동귀부학장, 교수진,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동귀부학장은 "이번 기증식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과 더 가까운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발달장애 학생들의 뷰티케어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리안헤어와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번 강의실 기증을 통해 뷰티케어학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전국 300여 개의 리안헤어 매장에 호산나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용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미용분야 취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호산나대학과 리안헤어가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있는 교역자가 증가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심판 전야와 같은 무서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성경의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형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위선자를 배출하게 된 원인이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은 불뚱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심판받을 죄가 된다.

초대교회는 병 고치는 경험, 전도하는 경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경험등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지방색과 인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편견은 무지와 교만의 산물이다.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편견은 무너져야 한다. 오늘날 교파간의 장벽은 교리적 차이보다는 감정과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이해가 앞선 결과일 것이다.

사도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순종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우선해야 할 것도 예배당 건축이나 구제나 선교나 조직 보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며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봉사이다.

2. 초대교회는 지도자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훌륭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제론을 요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곳을 떠났으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6월 정기당회 연기

6월 1일(수) 수요2부 예배후 정기당회를 개최기로 하였으나 5월 31일(화) 저녁 당회장이 당회를 흥해작전 이후로 개최하지는 감사드린 연기 요청이 있었다.

산재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당회원 33명중 23명이 당회장에게 당회개회를 촉구하고 수요 2부 예배 후 당회실에 모였으나 당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당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해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어 당회연기사유를 알리며 하루 빨리 당회가 개최되기 위해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주변 불법주차 금지

강남구청은 종교시설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교회주변의 불법 주·정차 견인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성도들은 교회 주변에 이열주차, 보도주차,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주차를 금하기 바란다.



을 떠나지 않았다. 저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했고 헌신적 정신과 깊은 책임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자기희생 정신은 교권쟁탈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교회가 해야 할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연합정신이 투철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으며 복음에 대한 절대 신념을 가지고 소신껏 용감하게 임했다.

이 같은 의미에서 한국 교회에 신학교 수는 많으나 이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와 같은 참 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신학교육 일선에 있는 이들의 염려요 기도제목이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먼저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과 위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상대화시키고 절대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절대 권위로 받아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교회와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 모두 서구 교회가 걸어갔던 슬픈 역사를 한국교회는 재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다음 주 계속)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한국교회 성장과 그 문제점 III

(속 4:6)

1.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금주, 금연, 축첩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의 불의에 항거한 것은 분리주의가 되어서가 아니며 사머니즘이나 유불선의 타종교에 대해 비판하고 혼합을 거부한 것은 배타주의적 태도에서가 아니다. 기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기독교 본질은 누구에게도 타협할 것을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 한국 교회 안에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구실을 가지고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혼합주의 또는 통일종교 등은 기독교 본질을 위태롭게 하는 독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앞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위선자가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과 신학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점차 한국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자기 치부를 하

2. 초대교회는 지도자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훌륭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제론을 요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곳을 떠났으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구원받은 날짜와 칭의의 교리를 왜곡하는 구원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사이버 이단 구원파는 네델란드 선교사인 케이스 글래스와 미국 선교사인 딕 욱의 영향으로 1960년대 초에 한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이단이다.

현재 구원파는 **유병언파(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요한파(대한예수교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파(대한예수교침례회 기쁜소식선교회: IYF)** 이렇게 세 계열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권신찬 목사이다.

권신찬은 예장통합측 장로교 목사로 활동하다가 죄사함을 깨달아 침례를 받음으로써 장로교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아 목사직을 박탈당한 사람이다. 사람이 회개와 믿음이 아닌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구원파의 주요 교리중 하나이다.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주로 이 이유 때문에 이들이 구원파로 불린다. 구원파 사람들은 정통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이 "언제 어디서 구원받으셨습니까?"이다. 이에 대해 정확히 확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준다.

자신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은 정확히 기억하여 매년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생을 좌우할 영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단 한 번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후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나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날짜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된 또 하나의 이유는 한 번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단 한 번만 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일상적인 죄들에 대해 자백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면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구원파는 이걸 부정하고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구원받은 후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나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해방감을 주기 때문에 구원파

에 미혹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그러면 왜 구원파는 이런 성경의 명백한 예들을 부정하면서 한 번의 회개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의 교리를 왜곡함으로써 정통 교회에 대하여 자기들만이 올바른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단의 체계를 세우기 위함이다.

만일 그런 식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한번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단은 항상 성경의 전체적인 시각 대신에 편향된 시각을 제공한다. 어느 사안을 볼 때 성경 전체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성경의 한쪽만을 붙잡고 억지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교육과 성경 전체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2016 홍해작전

우리 모두 함께 건너야 할 홍해



양춘경 장로 (홍해작전 참모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몸소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아론에게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던 보물들 까지 바쳐서 우상을 만들도록 간청하여, 지도자 아론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노하여 우상을 섬긴 백성을 멸하려 하였습니다. 지도자 아론의 옳지 않은 결정으로 다 죽게

된 백성들이었으나, 영적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상을 섬긴 백성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우상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지위까지 내어 놓는 희생을 당하려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 하실 때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 편에 선, 의롭고 선한 사역만 잘 감당 할 뿐, 주님의 몸된 교회 등을 해하는 사역인 악인의 꾀를 좇아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전쟁인 홍해를 잘 건너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앞에 두고 어찌 할 바를 몰라 절망에 처한 경우를 우리의 영적전쟁에 가름하고 해마다 호국의 달, 6월6일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25일 사이에 3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진정 선택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탕자처럼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려고 내 지식에 의한 내 판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상태로 홍해작전에 참여하여 주님 주님 하며 기도하여도, 영적전쟁에서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홍해작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신앙의 기초위에 바른 신앙생활과 신행일치의 삶으로 존경 받을 수 있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만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다 같이 함께 바라보며, 자신 앞에 놓인 홍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2016년도 홍해작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생명



이윤재 성도 (16교구)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군 장교로 사천에서 비행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훈련을 받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3월 9일 첫 솔로비행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모든 점검을 마치고 이륙을 하여 임무고도로 올라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공중 기동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조종석 내에 연기가 차오르고 곧 이어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 엔진이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죽음이 가까이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교관님과 대대장님께서 교신을 통해 해주시는 지시대로 따르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지로 활공하며 돌아오는 동안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 요동치던 마음이 점차 편안하게 가라앉아 차분하게 항공기를 조종하여 놀랍게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지휘관분들께서 오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하였다 하시며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더불어 웰던 상이라는 큰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제가 잘해서 무사히 착륙하고 칭찬받으며 큰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서 교관님과 대대장님께서 교신을 통해 조언해주시고 지시해주는 것, 지시대로 침착하게 조작하고 기지까지 활공하여 안전하게 착륙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삶이고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게 새겨 호흡하는 순간마다 이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시온찬양대(대장:차도훈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최윤희 집사의 지휘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Mark Hayes편곡)”, “일어나 걸어라(최용덕곡)”, “은혜 아니면(조성은 곡)”, “승전가(Roger C.Wilson 곡)”를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진형선생, 피아니스트 박승기 집사와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한다.

나의 하나님

봉사하는 청년들

주요교 성도 (청년2부)

8층 식당의 주방이 조금 더 좁어진 것을 눈치 채셨나요? 사실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며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식당 봉사는 청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는 청년1부와 2부의 청년들이 다락방 별로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원들 간의 식사 교체 이후 한 시간 정도 컵과 수저 설거지, 접시 정리, 국 나르기 등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일을 담당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봉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와서 격려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줍니다. 그럴 때면, 왜 청년들이 진작에 식당 봉사에 참여하지 않았나,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로서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일은 아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식당 봉사에 힘



써주시는 여러 귀한 손길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봉사를 하면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많은 양의 식기를 닦고 정리하는 일을 매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열정과 체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적합한 봉사가 식당 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라도 식당 일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점 더워지지만, 식당 봉사를 하는 청년들의 열정은 식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같이 설거지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어떤가요?

동정

- 위촉 : 백경화 권사(4교구) 당진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위촉받음
- 개업 : 손성실 권사(13교구) 러빙 하우스(전연 생필품) 대치동 1019-12 119호 1층 (교회 옆 이디야커피 옆골목)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 선교회(6.5) 안드레 빌립 선교회(6.5)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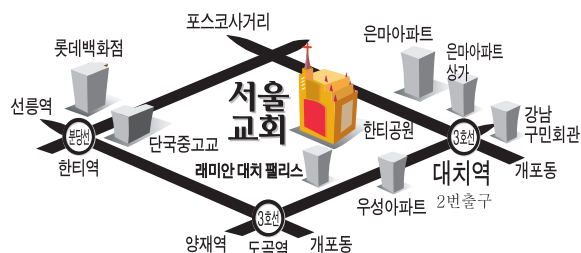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6년 흥해작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민족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다음세대를 온 교회가 품고 기도하여 다음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도록
3. 방글라데시 비전트립(8월 8일-15일)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